

## 본문에서 발견하기

-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_\_\_\_\_
-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_\_\_\_\_
- 하나님은 무엇을 예정하셨습니까?  
\_\_\_\_\_
- 하나님의 기쁘신 뜻은 무엇입니까?  
\_\_\_\_\_
-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실 때, 우리가 기여한 것은 무엇입니까?  
\_\_\_\_\_
-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결과는 무엇입니까?  
\_\_\_\_\_
- 하나님은 무엇때문에 나를 택하셨습니까?  
\_\_\_\_\_
-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하심을 통해 발견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_\_\_\_\_
-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하심을 입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_\_\_\_\_
-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하심을 입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_\_\_\_\_
- 본문에 나타난 복음은 무엇입니까?  
\_\_\_\_\_

## 적용하기

- 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어버릴 때는 언제입니까?
-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기쁘신 뜻은 무엇입니까?

## 지난 주 말씀묵상 (에베소서 1:3)

- 하나님은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신령한 복’ 사이에 커다란 간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을 말할 때 재물이나 건강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그 복의 기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마저도 더 잘 살기 위한 수단처럼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의 속성에서 흘러나오는 복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복입니다.
-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셨고,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죄를 용서하셨으며, 지혜와 계시의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셔서 구속의 날까지 확실히 보증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한 복의 내용이다. 하나님의 택하심, 자녀 삼으심, 구속하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심,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 이 모든 것들이 신령한 복, ‘구원의 복’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이 복을 주셨습니다.
- 사람들은 복에도 종류가 있다고 말한다. 재물의 복, 건강의 복, 인복, 그리고 그중 하나로 신령한 복을 끼워 넣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복은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주시는 신령한 복입니다.
- 그렇다면 이 복을 받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놀랍게도 그 조건은 단순합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에게는 분명한 열매가 나타납니다.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으며, 성령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 그럼에도 우리는 종종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영적인 복뿐 아니라 재물과 건강의 복까지 더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재물과 건강은 결코 절대적인 복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신 목적이 우리가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 없는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 재물도 많고 건강도 좋은데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재물과 건강이 그 사람에게 복일까요?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재물과 건강이 그 사람에 화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난하고 병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가난과 연약함은 그에게 복이 됩니다.
-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 없는 백성으로 빚어 가시기 위해 때로는 주시기도하시고, 때로는 거두실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데 필요하다면 말입니다. 결국 복의 기준은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